



고대안암병원뉴스

KOREA UNIVERSITY ANAM HOSPITAL NEWS

발행인 | 손창성 · 발행처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26-1 · 전화 : 02)920-5114 Fax : 02)920-5770 · 홈페이지 : http://anam.kumc.or.kr

2008
March

03

발행 | 3월 10일 · 월간 · No.12

고대 안암병원, 그 시작을 돌아보며



| 1941년 경성여의전 부속병원 내과 회진장면 |

1991년 10월 8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신축 이전 개원 기념식'이 열렸다. 고려대 의과대학과 부속병원(현재의 고대 안암병원)이 현재의 위치에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바로 이 때부터이다. 그 후로 교수연구동 증축과 내부 리모델링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변화와 발전을 모색한 결과 현재는 시설이나 규모에 있어서 개원 당시보다 훨씬 좋은 환경을 갖추게 됐다. 하지만 고대 안암병원의 시작을 돌아보면, 1991년 개원보다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 이전에는 비록 병원의 이름은 다르지만, 그 전통과 명맥을 고스란히 이어온 80여년의 숨은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고대안암병원뉴스'는 창간 1주년을 맞아 현재의 고대 안암병원이 있기까지 그 역사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 해화병원 전경 |



| 1991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신축이전 |

고대 안암병원이 1991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개원하기 전에는 해화동에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해화병원'으로 불렸다. 비록 병원 이전으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당시 제14대 해화병원장이었던 구병삼 원장이 계속해서 안암병원장으로서 임기를 마쳤고, 그 후에 제1대 안암병원장이 아닌, 제15대 안암병원장으로 유홍균 박사가 취임한 것만 봐도 고대 안암병원은 해화병원의 역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대 안암병원의 역사는 해화병원보다 한참을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해화병원'이라는 정식명칭이 사용된 것은 1983년부터다. 그 전에는 1971년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우석학원이 합병하면서 '고려대학교 의

과대학부속 우석병원'으로 불리다가 1976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1971년 고려중앙학원과 우석학원이 합병하기 이전에는 '우석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1967년 개칭)'이었으며, 그 이전에는 '수도외과대학 부속병원(1957년 개칭)', '서울여자의과대학 부속병원(1948년 개칭)'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고대 안암병원의 시초를 찾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1941년 개원한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에 다다르게 된다. 당시 건평 1,559평으로 지어진 이 병원은 1938년 5월 개교한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의 부속병원으로 건립된 것이었다. 비록 1948년 '서울여자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개칭되고서야 초대 병원장 이정복 박사가 취임했지만, 이미 1941년에 병원이 건립돼 개원했기 때문에 고대 안암병원은 국내에 서양의학이 도입돼 태동하던 이 시기부터의 유구한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38년 개교한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는 전남 순천의 유지였던 김종의 선생의 유언에 따라 지어진 것이었다. 경성여의전 이전에는 1928년에 건립된 조선여자의학강습소(1933년 경성여자의학강습소로 개명)가 한국 최초의 여자의학교육기관으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강습소는 미국인 여의사 Hall, 길정희 등의 선각자에 의해 건립된 것으로, 정식 전문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년 소관 총독부 학무국에 설립

인가 신청을 해야했고, 졸업생들은 총독부 주관 조선의사시험에 응시해 자격을 따라야만 했다. 또한 Hall 여사가 미국으로 돌아감에 따라 강습소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강습소를 여자의학전문학교로 승격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이를 위해 강습소에서는 김택원, 김종익 등으로 구성된 기성회를 구성했다. 조선여자의학전문학교 건립 당시에는 총독부의 간섭으로 이 기성회 사람들의 참여가 배제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학 강습소 학생 전원이 여자의학전문학교로 인수됐으며, 강습소의 집기, 기구 등도 기증됐다.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면 현재의 고대 안암병원은 '조선여자의학강습소'의 전통과 이념을 그대로 간직한 채, 일제 강점기 서양 의료가 처음 도입됐던 시기부터 약 80여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이어가고 있었다 할 수 있다.

남자의사에게 진료 받는 것을 금기시했던 당시 여성들에게 서양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의사를 양성하고자 '조선여자의학강습소'를 세웠던 건립자들의 사람에 대한 애정과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신념. 이 마음들이 현재까지 이어져왔기에 고대 안암병원은 '최고를 지향하는 인간중심의 참 병원'을 비전으로 삼고, 사람을 위한 의술 즉 인술을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고대 안암병원이 앞으로 이뤄내고자 하는 변화와 도약 속에 이러한 사람을 위한 사랑이 녹아있다면, 그 것은 더욱 의미있고, 가치있는 발전이 될 것이다.

Contents



창간1주년기념 설문조사
정보의 질 높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Fun! Fun! 즐거움이 터졌다.
'Smile'관련 슬로건, 포스터 공모작 시상



국내최초 통합의학센터 오픈!
환자들을 위한 맞춤치료제공,
환자의 치료효과 높일 것



미니인터뷰
핵의학과 전임의 박은경
환자에 대한 사랑, 연구에 대한 열정



우리병원들보기
창간 1주년 사진공모 당첨작
나와 늘 함께하는 '고대안암병원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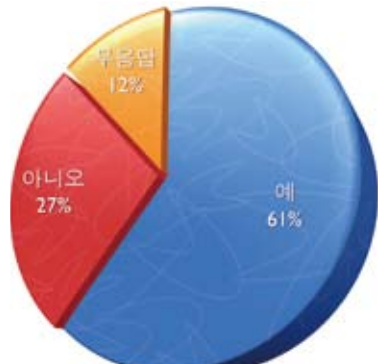
‘고대안암병원뉴스 창간 1주년 기념’ 설문조사 실시

정보의 질 높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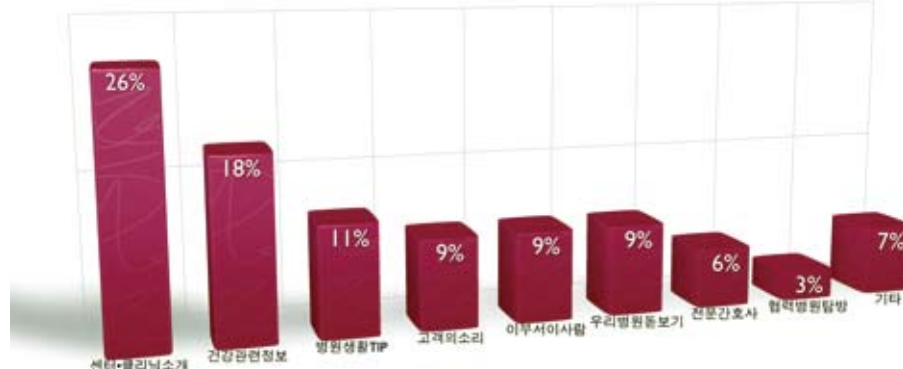
고대안암병원 뉴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앞으로 구독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가장 흥미로웠던 기사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고대안암병원뉴스’ 창간 1주년을 기념해, 지난 2월 교직원, 환자 및 보호자 등 23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년보다 더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병원을 찾는 고객의 의견을 반영한 뉴스를 만들기 위해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는, 앞으로 고대안암병원뉴스가 개선하고 바꾸어야 할 점에 대한 많은 조언과 충고가 들어있었다.

‘고대안암병원뉴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이번 설문조사는 외래·병동의 환자와 보호자,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 등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총 300여장의 설문지를 배포한 결과 233장이 회수되어, 78%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번 설문지의 첫 번째 질문은 ‘고대안암병원뉴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였다. 이 질문에 60명이 ‘아니오’라고 대답해 설문조사 대상의 약 26%가 뉴스레터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대답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 안에서도 뉴스레터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무엇보다, ‘아니오’라고 대답한 60명의 설문조사대상 중 절반이 고대 안암병원의 교직원이라고 답해, 고대안암병원뉴스 자체의 홍보가 더욱 활발해질 필요가 있음을 나타냈다. 대부분의 독자들은 외래나 로비에 비치된 것을 통해 고대안암병원뉴스를 접하고 있었으며(71%, 166명), 다른 기관(2명), 포탈이나 식당 앞 게시판 등 다른 경로를 통해서 신문을 접한다는 독자도 있었다.

병원이용정보, 건강정보가 가장 큰 도움

독자들은 고대안암병원뉴스에서 어떤 정보를 얻을까?

설문대상자들은 병원이용정보를 얻는 데 45%(104명)이 도움이된다고 대답했고, 33%(78명)가 보통이라고 대답해 고대안암병원뉴스레터가 제공하는 정보 중 병원이용에 관한 내용이 도움이 된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건강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가 40%(93명), 보통이 35%(81명)로 많았고, 진료과목 및 의료진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73%(170명)가 보통 이상이라고 대답했다. 반면, 쉽고 재밌는 기사들이 많은지에 대한 질문에는 71%(166명)가 보통이상으로 대답해, 병원이용정보, 건강정보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대답에 비해 고대안암병원뉴스에서 재미를 찾는 독자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클리닉소개, 건강이야기 가장 좋았던 기사

복수응답으로 조사했던 고대 안암병원에서 제일 좋았던 기사로는 고대 안암병원의 각종 우수한 센터와 클리닉을 소개했던 ‘센터·클리닉 소개(26%, 61명)’가 뽑혔다. 그 다음은 통합의학1~4, 신장이야기1~4 와 같이 시리즈로 게재됐던 건강관련 이야기(18%, 43명)에 대한 호응이 높았다. 그 외에도 병원생활tip(11%, 25명), 이부서 이 사람, 고객의 소리, 우리병원돋보기(각각 9%, 21명) 등이 좋았다는 응답이 있었다. 반면, 안암병원의 협력병원들을 소개하는 ‘협력병원탐방’을 좋았던 기사로 꼽은 사람은 3%, 7명밖에 되지 않아, 독자들은 병원 내 소식이나 건강 정보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미니 인터뷰, 병원소식이 가장 좋았다는 답변도 있었고, 진료

시간표가 가장 유용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고대안암병원뉴스 관심있다! 142명, 관심없다! 64명

앞으로 관심을 갖고 뉴스레터를 구독할 계획이 있느냐 물음에는 61%(142명)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구독하고 싶지 않다는 대답도 27%(64명)에 달해, 더욱 내실있고, 흥미있는 뉴스를 많이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냈다. 고대안암병원뉴스에 추가했다면 하는 내용에는 ‘민간요법의 진실’ 등 의학정보에서부터, ‘환자수기’, ‘간호부이야기’ 등 병원 안 내용들을 더 담자는 이야기도 있었고, ‘병원즐기기’, ‘기다림이 지루할 때 노하우’, ‘네컷만화’ 등 재밌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자는 의견도 있었다.

알차고, 재밌는 기사와 함께 새로운 고대안암병원뉴스로 발전

이번 설문 결과 고대안암병원뉴스에 관심을 갖고 조언과 애정을 보내는 독자도 많았지만, 무관심과 질타를 보내는 독자도 있었다. 특히 ‘고대안암병원뉴스’에 대해 전혀 모른다(26%, 60명)는 대답이나, 앞으로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싶지 않다(27%, 64명)는 대답은 내실있는 기사와 적극적인 홍보등 고대안암병원뉴스가 개선해야 할 사항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고대안암병원뉴스’는 더욱 다양하고, 쉽고, 재밌는 정보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매체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고대안암병원뉴스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창간1주기념 축하

모든 일은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처음 ‘고대안암병원뉴스’가 창간됐던 것이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동안 고대안암병원뉴스를 아끼고 사랑해주신 독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좋은 신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편집위원 여러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 ‘고대안암병원뉴스’는 저희병원 곳곳의 소식을 환자와 보호자, 교직원들에게 잘 전달하는 훌륭한

매체였습니다. 저 또한 ‘병원소식코너’나 ‘이부서이사람 코너’ 등을 통해서 병원 곳곳의 소식들을 더 자세히 접할 수 있어 무척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욱 많은 독자들에게 재밌고 알찬 소식을 전달하기위한 변화를 ‘고대안암병원뉴스’는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창간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답해주신 독자여러분들의 의견도 꾸준히 반영해 더 나은 신문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 동안 ‘고대안암병원뉴스’를 사랑해주신 독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독자여러분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담기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대안암병원장 손창성

"funfun smile up Campaign" Fun! Fun! 즐거움이 터졌다!

‘Smile’ 관련 슬로건, 포스터 공모작 시상



고대 안암병원(원장 손창성)은 지난 2월 4일(월) 8층 대강당에서 ‘Fun Fun Smile Up Campaign 슬로건과 포스터 공모작 설명회 및 시상식’을 개최하고, 7명과 2개 팀에게 상장과 상품을 전달했다.

이번에 시상한 슬로건과 포스터는 지난 12월 14일부터 31일까지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모한 총 500여점의 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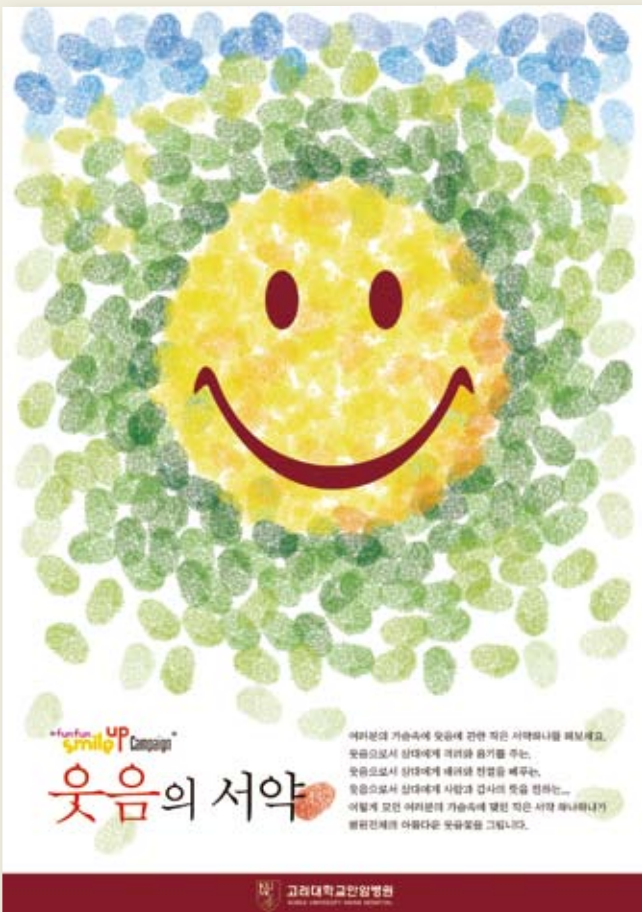
건과 포스터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중 기획위원회에서 10개의 슬로건과 23개의 포스터를 사전에 선정했으며 이번 행사에서 선정된 슬로건과 포스터에 대한 간단한 발표를 한 후, 박건우 기획실장, 김유진 관리실장, 장연희 간호부장이 심사를 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대상은 홍보팀 백옥기 사원의 포스터

‘웃음의 서약’이 차지했다. ‘웃음의 서약’은 서약을 나타내는 손도장이 모여 커다란 스마일을 만들어내는 모양으로, 가슴속에 맺은 웃음에 대한 작은 서약 하나 하나가 모여 병원 전체의 웃음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외에도 최우수상은 슬로건부분은 원무팀 이미영 사원의 ‘사랑담긴 작은미소 웃음가득 환자사랑’이, 포스터 부분은 전산운영팀 윤주성 사원의 ‘웃음알약’이 각각 차지했으며, 우수상은 슬로건부분은 분만실 김현주 간호사의 ‘작은실천 환한미소, 돌아오는 고객만족’과 원무팀 박건영 사원의 ‘내가먼저 작은미소, 돌고돌아 함박웃음’이, 포스터부분은 진단검사의학과 김민기 임상병리사의 ‘미소...기적’과 영상의학과 박준열 방사선사의 ‘미소바라기’가 수상했다. 우수부서는 영상의학과와 심혈관계중환자실이 선정돼 수상했다.

손창성 안암병원장은 “이번 캠페인에 전 직원들이 보내준 많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캠페인에서 보여준 많은 슬로건과 포스터만큼 늘 웃을 수 있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랑담긴 작은미소, 웃음가득 환자사랑’ 최우수상_ 원무팀 이미영

‘작은실천 환한미소, 돌아오는 고객만족’ 우수상_ 분만실 김현주

‘내가먼저 작은미소, 돌고돌아 함박웃음’ 우수상_ 원무팀 박건영



- ① 대상[웃음의 서약]_ 홍보팀 백옥기
- ② 최우수상[웃음알약]_ 전산운영팀 윤주성
- ② 우수상[미소바라기]_ 영상의학과 박준열
- ② 우수상[미소...기적]_ 진단검사의학과 윤주성

국내 최초 통합의학센터 오픈 환자를 위한 맞춤치료 제공, 환자의 치료효과 높일 것으로 예상



고대 안암병원(원장 손창성)은 지난 2월 14일(목) 국내 최초로 '통합의학센터'(센터장 김형규)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갔다. 통합의학센터에서는 식이영양치료, 명상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증세와 개인에 맞추어 다양한 치료방법을 통해 환자의 질병을 치료할 예정이다. 특

히 각 분야 최고의 의료진을 바탕으로 스트레스, 비만, 소아 청소년 행동교정 뿐만 아니라 뇌와 척추환자, 암환자 등 각 질병 및 증상에 따른 맞춤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질병 치료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통합의학은 인체에 대해 전인적인 치료 방법을 통한 치료와 전인적인 접근을 통하여 질병을 가진 환자들의 개별적 욕구와 특성에 치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환자들의 치유를 돕고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치료방법을 동원하여 개인별 맞춤치료를 지향하고 있다. 

하나은행으로부터 20억 기부 받아 계속되는 기부금 통해 국내의학발전 위한 초석 다질 것



고려대의료원(부총장 오동주)은 지난 2월 20일(수) 고려대학교 총장실에서 하나은행과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20억원의 기부금을 받았다. 이번 기부금 전달식에는 하나은행 김종열 은행장을 비롯해 고려대학교 이기수 총장, 오동주 의무부총장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가해 그 의미를

더했다. 하나은행이 기부한 20억은 세계적인 의료기관으로 성장하고 있는 고려대의료원의 발전과 국내 의학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종열 은행장은 기부식에서 "이번 기부는 국내 기부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국내 의학계를 이끌고 있는 고려대의료원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양 기관이 더불어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동주 의무부총장은 행사에서 "하나은행의 기부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기부를 통해 국내 의학발전의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기부금의 의미를 더했다. 

고대 법대 교우회, 소아중증 환아들을 위한 자선기금 기부



고대의료원은 2월 20일(수) 그랜드인터콘티넨털호텔에서 열린 고대 법대 교우회

에서 소아 중증 환아를 위한 자선기금으로 5000만원을 기부 받았다. 이번 고려대 법대 교우회의 기부는 어려운 경제적 사정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소아중증 질환자들을 위해 교우들이 직접 나서 모금한 것으로 모든 교우들의 마음을 담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소아 환아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교수, 국제 심방세동심포지움 초청 강연



심혈관센터 김영훈 교수가 1월 18일(금)부터 20일(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제12회 보스턴 심방세동 심포지움(Boston AF Symposium)에 초청돼 강연했다. 김영훈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고려대의료원 부정맥팀(김영훈, 박희남, 임홍의 교수)이 심방세동 환자의 전극도자절제술의 성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시도한 신기법인 '심내막 및 심외막 혼합접근법'의 결과를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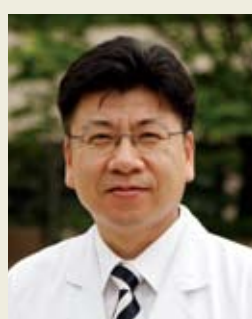
신중호 교수, 대한심폐소생협회 최고강사상 수상



응급의학과 신중호 교수가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최고의 심폐소생술 강사에게 수여하

는 감사장을 받았다. 이 감사장은 1월 17일(목) 서울대학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열린 '대한심폐소생협회 총회'에서 주는 것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해 힘쓴 최고의 강사(Best Instructor)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김선한 교수, 국제복강경대장 수술학회 대의원으로 선출



대장항문외과 김선한 교수가 2월 12일, 13일 양일간 미국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에서 열린 '제3차 국제 복

강경대장수술학회(the 3rd International Congress of Laparoscopic Colorectal Surgery)에서 대의원에 선출돼 주목받고 있다. 국제복강경대장수술학회의 대의원은 미국, 유럽, 아시아-오세아니아로 나누어 각 3명씩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사들이 선출되는 자리로 알려졌다. 

소아청소년과, SK나이츠와 함께하는 성장강좌 개최



소아청소년과는 2월 16일(토) 'SK나이츠와 함께하는 성장강좌'를 개최했다. 오

전에는 고려대 의과대학 제3강의실에서 '성장'을 주제로 소아청소년과 이기형 교수가 부모와 아이들에게 특강을 진행하고, 이지혜 영양사가 '성장을 위한 영양관리'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성장에 관한 강좌 이후에는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SK나이츠의 농구경기를 관람하는 시간을 함께했는데 참가자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에 큰 호응을 얻었다. 

2008 신입간호사교육 실시



고려대의료원이 2월 11일(월)부터 '2008 신입간호사교육'을 시작하고, 1일차 교육 일정에 들어갔다. 신입간호사 447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안암, 구로, 안산 등 3개병원에서 총 나흘간 진행됐으며, 200여 명씩 11일에서 14일까지 진행되는 1차 교육과 18일에서 21일까지 진행되는 2차 교육으로 나누어 각각 실시됐다. 

의과대학, 히포크라테스 선서식 개최



고려대 의과대학(학장 정지태)은 지난 2월 25일(월) ‘히포크라테스 선서식’을 개최하고 의과대학 졸업생들에게 의사로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히포크라테스 선서식’에는 오동주 의

무부총장 뿐만아니라 졸업과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축하하기 위한 많은 인사가 참가해 선서식장의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이번 히포크라테스 선서식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도 참된 의사의 정신을 잃지 않고 고귀하고 소중한 생명의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 존경받는 의사로서 거듭나기를 기원하는 행사이다. 한편 이번 선서식에서는 문현임 졸업생이 졸업특대상을 수상했고, 장지은 졸업생이 대한의사협회 회장상을, 김민영 졸업생이 대학의학회장상의 영예를 안았다. 📖

2008 협력병의원 신년회 개최



고대 안암병원은 지난 1월 18일(금) 오후 7시 홀리데이인 성북 호텔에서 ‘2008 협력병의원 신년회’를 개최했다. 이 신년회에서는 협력병의원에 실시한 진료회송 활

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지난 12월 1일부터 한 달간, 협력병의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와 이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기도 했다. 손창성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설문조사에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린다. 칭찬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질타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07 상반기 의무기록 정리 우수부서 포상



고대 안암병원은 지난 1월 30일(수) 본 부회의실에서 ‘2007년 상반기 의무기록 정리 우수부서’를 포상했다. 이 상은 지난

2007년 상반기인 3월부터 8월까지 의무기록을 잘 정리한 부서를 포상한 것으로, 고대 안암병원은 매년 두 차례 이러한 포상을 통해 철저한 의무기록정리를 장려하고 있다. 최우수부서에는 이비인후과, 우수부서는 산부인과와 재활의학과가 각각 선정됐다. 부상으로 이비인후과는 상금 30만원이, 산부인과와 재활의학과에는 상금 각 20만원이 전달됐다. 📖

선형가속기.CT시뮬레이터 가동식 개최



고대 안암병원은 2월 18일(월) 선형가속

기와 CT Simulator의 가동식을 가졌다. 이번 가동식에는 오동주 의무부총장, 손창성 안암병원장, 이상학 진료부원장, 박건우 기획실장, 김유진 관리실장, 김철용 방사선 종양학과장 등을 비롯한 20여명의 교직원들이 모여 최신 치료기기의 도입 및 가동을 축하했다. 📖

QI경진대회 개최



고대 안암병원은 지난 1월 29일(화) 대강당에서 QI경진대회를 개최하고 1년 동안 펼쳐온 QI활동에 대해 정리하고 수상하는 자리를 개최했다. 이번 QI경진대회에서는 진단검사의학과와 ‘응급 검사보고 단축’,

수술실의 ‘수술환자 대기시간 초과율 감소’, 간호부 질향상위원회의 ‘입원안내 생활책자를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75병동의 ‘의무기록 충실성 향상’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또한 인공신장실의 ‘혈액투석 환자 진료단계별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간호부 질향상위원회의 ‘간호관련 기록 효율성 향상’이 우수상을, 최우수상에는 의료정보팀의 ‘의무기록 질 향상’이 최우수상, 영예의 대상은 74병동의 ‘편리한 투약 업무’가 차지했다. 📖

보건과학대학, 신축 도서관 기공식 개최



고려대 보건과학대학(학장 임국환)은 지난 1월 21일(월) 보건과학대학 호림광장에서 보건과학대학도서관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도서관 신축공사에 들어갔다. 이번에 신축되는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도서관은 1,122.72㎡의 면적에 지하 1층, 지하 5층의 연면적 5,030.10㎡로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작했다. 신축되는 도서관에는 자유열람실과 멀티미디어실은 물론 학생들의 세미나를 위한 세미나실, 그룹 스터디 룸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보건과학대학의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보건과학대학, 제44회 학위수여식 개최



고려대 보건과학대학이 지난 2월 26일(화) 호림관 5층에서 제44회 학위수여식을 갖고, 총 49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물리치료과, 치기공과, 식품영양과, 환경보건과, 보건행정과 등 7개 과의 대표에게 학위가 수여됐으며, 그 외에도 이사장상 1명, 보건대학장상 1명, 교우회장상 7명, 학년우등상 7명 등을 수상했다. 특히 국가고시에서 전국수석을 차지한 치기공학과 김은아 학생(05학번)에게는 특별상을 수여해 의미를 더했다. 📖

영양지원위원회 Workshop 개최



영양지원위원회(Nutrition Support Team, NST)는 지난 1월 24일(목) NST

Workshop을 개최하고 환자의 영양관리와 영양 지원 프로그램 등에 관한 강의를 실시했다. 이번 Workshop은 초청자인 위헌진 강사의 정맥영양(Parenteral Nutrition)치료에 관한 강의를 비롯해 영양팀 김태진 영양사의 경장 영양(Enteral Nutrition) 치료, 약제팀 강영미 약사의 NST 소개와 새로 개발된 컨설팅 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강의로 이루어졌다. 📖

>>>>고객의소리

당뇨환자의 식후 검사를 위한 식사장소 제안 글

저는 2000년부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당뇨가 있어 평생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건강을 돌봐야 하는데, 당 검사를 위해 병원에 내원할 때 마다 한숨과 걱정이 듭니다.

이유는 식후 당 검사를 하기위해 식사를 해야 하는데, 집에서 도시락을 싸와 식사를 하려고 보면, 마땅히 먹을 장소가 없어 불편합니다. 처음에는 로비에서 먹기도 했지만, 직원분들이 냄새 때문에 다른 곳에서 식사하도록 해 건물 여기 저기에 숨어서 급히 먹다가 체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날이 따뜻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먹으며 검사를 받고 있지만,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는 식사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당뇨는 한번 걸리면 평생 관리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식전·식후 당 검사를 해야 합니다. 저와 같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많은 환자를 생각해 병원 안에서 편안히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고객님의 제안 글입니다〉

>>>>이렇게이용하세요

오전 10시까지 1층 직원식당을 이용해주세요~

저희 고대 안암병원을 이용하시면서 불편하셨던 사항을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후 당 검사를 하려면 식사하실 곳이 꼭 필요하셨을 텐데,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대 안암병원에서는 이미 2006년부터 당뇨 환자분들이 편리하게 도시락을 드실 수 있도록 직원 식당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직원식당은 1층에 있으며, 오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이곳에서 자유로이 도시락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이러한 점이 당뇨 환자분들에

게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아 불편을 겪으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식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직원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직원 여러분들의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병원을 이용하시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고, 늘 고객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고대 안암병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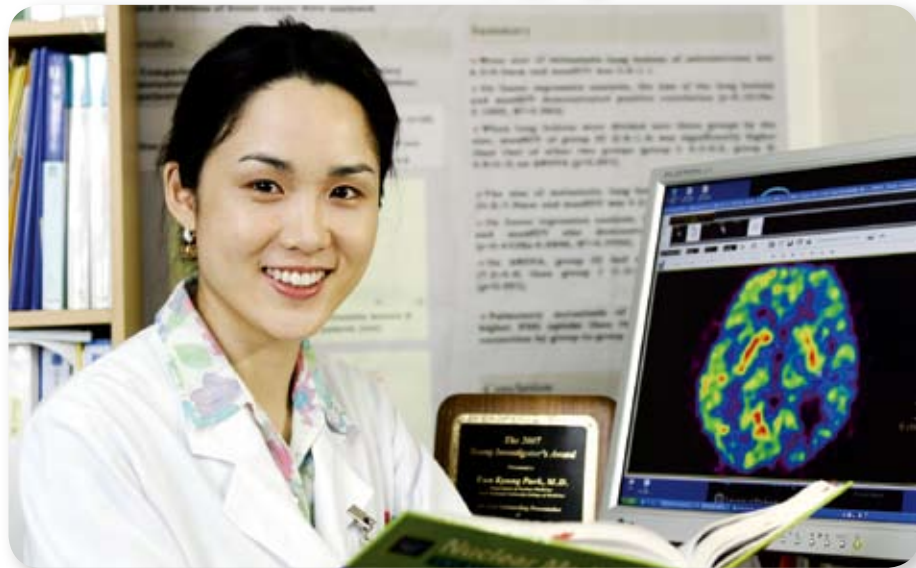
>>>>병원생활TIP

고대 안암병원 內 종교 활동

고대 안암병원에서는 기독교 예배·천주교 미사·불교 법회와 같은 종교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소 종교 활동을 하셨던 많은 고객님의, 병원에서도 이를 지속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곧 건강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원목실	천주교 원목실	불교 법당
위치 1층	1층	1층
이용시간 평일 9:30~17:30까지 (월수금 ~21:00까지)	성체조배실 24시간 개방	매일9:00~17:00
종교활동 주일예배: 오후3시, 8층대회의실 수요예배: 오후7시, 8층대회의실	주일미사: 오후1시30분, 8층중회의실 병자영성체: 주일미사 후	-
문의 02)920-5206	02)920-5101	02)920-5465

미니인터뷰 | Mini Interview

환자에 대한 사랑, 연구에 대한 열정
핵의학과 전임의 박은경

핵의학과는 우리 몸 속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뜯어 보는 일을 한다. 다시 말해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분자 수준의 미세한 변화들, 즉 우리 몸의 근본적인 생명 현상을 영상화한 '분자 영상(molecular imaging)'을 포착하여 진단에 사용하는 것이다. 핵의학과는 이러한 분자 영상 기법을 바탕으로 이미 몸 속에 있는 질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잠복해 있는 질병 요소를 사전에 찾아내 진단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예방하고, 나아가 개인별 맞춤 치료를 가능케 하는 21세기 첨단 의학분야로 알려져 있다.

마침 이 첨단 분야 분자 영상 연구로 국내외 해외 학술대회에서 두드러진 활약을보인 젊은 의사가 우리 고대 안암병원에 재직하고 있어 미니인터뷰에서 만나보았다. 핵의학과 전임의로 근무하고 있는 박은경 선생님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박 선생님은 국내 최초로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변화를 영상화, 지난 10월 원자력의학원에서 열린 제46차 대한핵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하였으며, 앞서 9월에는 미국에서 열린 연합분자영상의학회(Joint Molecular Imaging Conference - Academy of Molecular Imaging과The Society of Molecular Imaging 공동 주최)에서 같은 주제로 "Travel award"를 수상하였다. 박 선생님은 이미 전공의 시절이던 2006년에도 종양의 당 대사에 관한 연구로 일본 핵의학회에서 수여하는 'Asia and Oceania Distinguished Young Investigator's Award'를 수상한 바 있는 재원이다.

박 선생님을 만난 곳은 아직 겨울 기운이 가시지 않은 혜화동동성고등학교 강당.

연구에만 몰두하는 냉철한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을 상상했던 기자의 예상을 뒤엎고, 미소 띤 앳된 얼굴의 박 선생님이 나타났다. 이곳 강당에서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가 매주 일요일마다 열린다. 주로 서울대병원과 고대의료원 의료진이 주축이 되어 진료 봉사를 펼쳐가는데 '라파엘 클리닉'에서 박 선생님은 많은 동료의사, 의대생, 일반 봉사자들과 함께 중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파키스탄 등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환자들을 위해 7년째 봉사를 해 오고 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오히려 제가 이분들로부터 더 큰 기쁨과 활력을 얻어갑니다"며 겸손하게 말문을 여는 박 선생님은 "현재 많은 분들의 아낌없는 도움과 자원봉사로 클리닉이 잘 꾸려져가고 있지만, 타지에서 질병과 외로움으로 이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더 큰 관심과 후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게다가 매년 서울대학교병원 로비에서 열리는 '환자를 위한 희망 음악회'에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첼로 연주를 하는 그는 사랑과 열정이 많은 의사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렇듯 첨단 의학 연구와 나눔의 실천을 조화롭게 해나가며 밝고 친절한 핵의학과 분위기를 더욱 화사하게 만드는 그는 "사람들이 어우러져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며 "소식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이 뉴스레터가 앞으로도 독자들에게 희망과 사랑의 전령사가 되기를 기원한다."는 창간 1주년 축하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글.사진. 강용길 원내기자(핵의학과)

고대 안암병원의 특별한 동반자 서울시의회 김기성 부의장



항상 고대 안암병원을 찾아 힘을 주는 많은 교우들은 고대 안암병원이 발전 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러한 교우들의 관심과 애정은 환자의 불편을 고치는 것에서부터 도로의 작은 표지판을 바꾸는 것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힘이 되고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기성 부의장 역시 고대 안암병원이 나아가는데 있어 큰 힘이 되고 그 누구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는 교우이다. 그런 김기성 교우로부터 고대 안암병원에 대한 조언을 들어본다.

Q 고대 안암병원과의 인연은?

첫 아이 출산 때부터니까 약 30여 년이나 된다. 최근에는 우이령 마라톤대회에 참석 하였다가 심장에 이상으로 심혈관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게 됐다. 건강은 한번 잃

게 되면 다시 찾기가 힘든데 그래도 흉부외과 신경교수님을 비롯해 여러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서 다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

Q 병원을 위해 많은 조언을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것이 있나요.

나의 생활권과 가까이 있다 보니 병원을 이따금 찾는데 그때마다 시민들이 병원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조언을 해주곤 한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안암역 안내 표지판이 잘못되어 병원을 찾아가기가 매우 어려웠었는데, 지하철공사 관계자들과 협의해 사인보드를 수정한 일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역이기는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찾고 이용하는 공공시설인데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었고 바로 수정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들은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내 본분인 시의원으로써 시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나온 행동의 발로라고 생각한다.

Q 첨단의학센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고대 안암병원은 서울 동북부의 의료로 책임져야하는 의료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의학센터를 주차장 부지에 신축해 외래진료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현 외래병동은 입원환자만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미래 지향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첨단의학센터가 안암역과 접해있어 랜드마크로서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 병원의 발전을 위한 조언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의료기관은 지역을 기반으로 생명을 다루는 소중한 분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병원에서 돈을 번다고 수익사업만 강조하다가는 인심을 잃고 연구의 기반이 무너지질 모른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한다. 고려대학교가 이 땅에 교육을 위해 사학의 자존심을 지켰듯이 고려대의료원도 생명의 고귀함을 받들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밝힐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 그렇게 된다면 많은 환자를 기반으로 한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외국의 그 어떤 의료기관도 부럽지 않은 선도적인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행과 참된 가치를 추구한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므로 카네기와 같은 독지가들로부터 기부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는 또 다른 선행을 위한 밑거름으로서, 고대의료원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우리병원동보기



나와 늘 함께하는 고대안암병원뉴스

지난 한 달 동안 '창간1주년 사진공모'에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들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사진 중 5분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뉴스레터와 함께하는 사진 속 모습처럼, 언제나 뉴스레터를 아끼고 사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보고난 후 모자로 재밌음 | 수술실 김미숙



뉴스레터는 우리아이 글자 연습용? | 심혈관센터 교수정



나의 생활 곳곳의 뉴스레터 | 의료정보팀 김선희



바탕화면엔 뉴스레터 메인기사를 | 의료정보팀 전호영



뉴스레터로 편리하게 진료시간표 확인 | 인사팀 윤순정

>>>지역소식

동대문보건소, 토요 아토피 교실 운영

일시	매월 첫째주 토요일 10:00-13:00
장소	한의학박물관(소강당)
문의	보건지도과 02)2127-5389, 5426

동대문보건소, 임산부 출산교실 운영

일시	매주 화요일 14:00-16:00 (08년 3월 4일-25일)
대상	임산부 30명
문의	02)2127-5079, 5388(선착순 인터넷접수)

동대문보건소, 토요부부출산교실 운영

일시	매월 셋째주 토요일 10:00-12:00 (08년 3월-12월)
장소	동대문구 관내 산모 15쌍 또는 직장여성(30명)
문의	02)2127-5079, 5388(선착순 인터넷접수)

성북구보건소, 재미있고 건강에 도움 되는 걷기 운동 교육

신청기간	08년 2월 1일-3월 31일
대상	성북구 주민
문의	건강증진팀 02)920-1980

정리. 이민이 원내기자,간호부

.....

.....

.....

2008년 3월 10일 현재

과 별(전화)		의 사 명		오 전	오 후	전 문 진 료 과 목	과 별(전화)		의 사 명		오 전	오 후	전 문 진 료 과 목				
소화기센터 3층 (6551)		*류 호 상 *김 창 덕 *엄 순 호 *전 훈 재 *진 윤 태 김 용 식 *서 연 석 금 보 라 권 용 대	화,목 월,수,목 월,수,금 화,목,금 수,금 월,화 월,목 월,금 수,금	화,목 화 수 금 화,수 월,목 월,금 수,금	간질환, 위장관 담석,체장질환 간질환 위장관 위장관 위장관 간질환 위장관 담석,체장질환	소아청소년과 3층 (5650)	*손 창 성 *정 지 태 *이 광 철 *박 상 희 *이 기 형 *유 영 *이 장 훈 최 익 선 한 재 준 일 반 의	목 화,금 월,목 화,수,금 금 월,수 목,토 수 월,수,토 월~금	월 화 목 수 월,화,수 목,금 월,금 수 금 월~금	소아 심장,유전,신생아질환 소아알레르기,호흡기천식,아토피 소아 혈액종양,대사질환 소아 소화기,청소년 소아 내분비성장(화2,4주) 소아알레르기,호흡기천식,아토피 신생아질환(토-격주) 소아알레르기,호흡기천식,아토피(1,3주) 소아소화기질환,위장질환,간질환,주기성구토증(토-격주) 예방접종(오전10:30~11:30오후14:30~15:30)							
	내 과 3층 (5410)	신장	*김 형 규 *조 원 웅 *조 상 경 *부 창 수 우 영 석	월,금 수,금 목 화 월	화 월,수 수,목 금 목		고혈압,신장병 고혈압,신장병 고혈압,신장병 고혈압,신장병 고혈압,신장병	소아클리닉	손 창 성/장 기 영 (월:오후):소아심장(손창성:진료, 장기영:심장초음파검사)			이 광 철 (목:오후):소아혈액종양 박 상 희 (수:오전):청소년 임 형 은 (1,3주 화:오후)소아신장질환 이 기 형 (수:오후)소아 내분비-저신장,당뇨,갑상선(2,3주)소아비만(4주) 은 소 희 (1,3주 목:오후)소아 신경생리 송 동 호 (2,4주 월:오후/매주 화:종일)성장통,다리기형					
			내분비	*최 동 십 *김 신 곤 *김 희 영 이 윤 정 박 수 연	화,목,금 화,금 수 수 월		목 화,수 월,수 화 금		내분비 내분비 내분비 내분비 내분비	안 과 2층 (5520)	*조 윤 애 *김 효 명 *유 정 권 *김 성 귀 서 영 우 강 수 연 일 반 의	월,목 화,목,금 금 월,화 월,화 화,수 화,수,목,금	사시,약시 백내장,근시교정,각막(금:백내장초진,근시교정클리닉) 녹내장,백내장 망막,유리체출혈(금:레이저) 사시,약시,안성형 각막,백내장 안과,일반학				
		감염		*김 민 자 박 윤 선 김 정 연	화,금 월,수 목		수 화,목 월		감염질환,열병클리닉 감염비환,열병클리닉 감염질환,열병클리닉		가정의학과 2층 (5104)	*조 경 환 *김 도 훈 이 경 식 박 창 해 일 반 의	월,수,금 수 화 금 월,화,목	월,수,목,금 화,금 수,목 수 월~금	노인학,골다공증,만성질환,호스피스 건강증진,노인병,비만 가정의학,비만 가정의학 일반가정의학		
			류마티스 일반	*이 영 호 일 반 의	월,화,수 월~금		화,목 월~금		관절염,류마티스,루프스 내과질환			정신과 2층 (5505)	*이 민 수 *김 린 *이 헌 정 *강 이 현 강 승 결 이 화 영 일 반 의	월,수,금 화,목 화,수 목 목 화,토 토	월,수 월 화,목 화,목 화,금 월,수,목	우울증,스트레스장애,정신분열증 수면장애,적응장애,정신분열증 기분장애,수면장애,정신분열증 우울증,불안장애,노인정신의학 일반정신의학 일반정신의학	
	암센터 2층 (5890)	종양 혈액 (5890)	*김 열 흥 *김 병 수 박 경 화	수 월,화,금 목	월,목 수 화,금		위암,소화기암,항암치료 혈액암(백혈병,림프종,다발성골수증),골수이식,혈액질환 유방암,부인과암	신경과 2층 (5510)	*이 대 희 *박 건 우 *김 병 조 *정 기 영 *유 성 욱 일 반 의				월,목 월,화 수,목 수 화,금 화,수	화 목 월 월,목 금 화,수	뇌혈관질환,치매,두통 파킨슨병,치매,운동장애,기억력장애 말초신경장애,척추근육질환,뇌졸중 간질(경련성질환,실신),두통 어지러움증,수면장애=목요일 오후 뇌졸중,어지러움증,두통 신경과질환		
			방사선 종양 (5516)	*김 철 웅 *박 영 제	월,화,목,금 화,수		월,목 월,화,수,금		폐암,소화기암,두경부암,뇌종양 전이성 종양	산부인과 2층 (5450)			*나 중 역 *이 규 완 *강 재 성 *김 선 행 *홍 순 철 *송 재 윤 박 현 태	화 수 월 목 토 금 수,금	목 월 금 수 월,화 화,목 수,금	불임,폐경기관리,내분비질환 부인암(자궁경부암, 난소암, 내막암) 부인암(자궁경부암, 난소암, 내막암) 불임(체외수정),폐경기관리,여성내분비 산과, 고위험임신 부인암(자궁경부암, 난소암, 내막암)Colpo시술 일반산부인과	
	심혈관 센 터 F층 (6700)	순환기	*심 완 주 *임 도 선 *박 희 남 *홍 순 준 *박 성 미 *최 중 일 박 재 석 김 용 현 *안 철 민 장 진 근 곽 재 진	월,목 화,수,목 화,목 수,금 화,금 화 수,목 수,목 목,금 월	화 - 화 수 수 수 수,목 금 목 목,금 월		고혈압,협심증,심부전,심장판막질환 협심증, 고혈압, 심혈관중재시술(초진만) 부정맥(초진클리닉 수~금,08:10) 협심증, 고지혈증, 심혈관중재시술 고혈압,협심증,심부전,심장판막질환 심장 심장 심장 협심증,고혈압,심혈관중재시술 심장 심장	혈액 2층 (5436)	*신 경 *손 호 성 *손 창 성		수 월 월		목 수 수	심장,혈관외과,인공심장 대동맥,관상동맥,말초혈관질환 소아심장클리닉			
			호흡기 센 터 2층 (5436)	호흡기	*유 세 화 *인 광 호 *인 상 업 *강 은 해 이 은 주 하 은 실		월,수,목 화,목 월,금 월,목,금 화 수,목 화		월,목 화,수 월,목,금 수,목 화		호흡기,폐암,결핵,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호흡기,폐암,결핵,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호흡기,폐암,결핵,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호흡기,중환자의학,폐렴 호흡기질환 호흡기질환	외 과 3층 (5401)	위장관 간담 체 대장 항문 이식 관	*김 종 석 *박 중 민 *김 영 철 *서 성 욱 김 정 윤 *김 선 한 *김 진 목 최 동 진 *안 형 준	수 화 화 월 금 금 목 목 수 금	월 목 목 수 화 화 월 금	위암,상부위장관질환 위암,상부위장관질환 간,담도,체장질환 간,담도,체장질환 간,담도,체장질환 대장,직장,항문질환(로봇수술) 대장,직장,항문질환(로봇수술) 대장,직장,항문질환 장기이식,혈관질환
					유방센터 3층 유방내분비외과 (6670)		유방		*배 정 원 *우 상 욱 김 훈 이 성 재 김 정 하		화,목 목 금 금 월,화,수,목,토			화 월,수 월,수 월,수,금 월,수,금	유방암,갑상선암,부갑상선및부신종양 유방암,내분비내과질환 갑상선암,부갑상선종양,부신종양 만성질환 건강증진스트레스,영양,비만,노화방지,만성피로	정형외과 3층 (5430)	*박 상 원 *채 인 정 *이 순 혁 박 중 웅 *한 승 범 *박 중 훈 *정 응 교 *박 시 영 이 대 희
신경외과 3층 (5550)	신경	*이 훈 갑 *서 중 근 *정 용 구 *조 태 형 *이 장 보 *강 신 혁 신 일 영 태 현 석	월 화,목 수,목 월,수 화,금 금 목 월,수 금	목 수 화 화 화 목 월,수 금		소아신경외과, 뇌종양, 뇌혈관질환 척추질환,척추외상 뇌및척추종양, 뇌혈관질환, 두통 척추질환, 척추외상 척추질환, 척추외상 뇌혈관질환, 뇌종양, 두부외상 뇌혈관질환, 뇌기저부종양, 두부외상, 안면경련, 삼차신경통 두부외상, 척추질환		성형외과 3층 (5440)	*박 철 *이 병 일 김 덕 우 정 성 호 일 반 의	월 월 수 수,금 월~금	월,금 수 목 월~금	귀성형 미용성형, 유방, 미세수술, 안면재건 흉터성형, 지방성형, 두경부, 종양, 레이저 확상재건, (손)외상, 욕창및하지손상 일반재건성형					
		성형외과 3층 (5440)	성형	*박 철 *이 병 일 김 덕 우 정 성 호 일 반 의	월 월 수 수,금 월~금	월,금 수 목 월~금	귀성형 미용성형, 유방, 미세수술, 안면재건 흉터성형, 지방성형, 두경부, 종양, 레이저 확상재건, (손)외상, 욕창및하지손상 일반재건성형										